



《Inception chair》2016



《Layered table》2016

Ryu Jongdae

2006 Bachelor of Wood craft, Donga University
2014 Master of Industrial Art, Hongik University Graduate school

2012 Hongik Art Furniture Exhibition/ HCM, Seoul
2013 Furniture is something to us/ HCM, Seoul
2013 London design festival: Art Furniture exhibition/ London
2014 Hongik Art Furniture group exhibition/ HCM, Seoul
2014 Kyunghyang Housing Fair: Art furniture exhibition/ KINTEX
2014 International Craft Trend fair(Creator's booth)/ COEX, Seoul
2016 Maison Korea 'Korean Sprit'/ Edition October, Seoul
2016 New memories in holiday/ Gallery Artside, Seoul
2016 International Craft Trend Fair(Creator's booth)/ COEX, Seoul

柳鍾大

2006 東亜大学校 美術大学木工芸科 卒業
2014 弘益大学校 産業美術大学院 卒業

2012 弘益アートファニチャー グループ展/ HCM・ソウル
2013 Furniture is something to us展/ HCM・ソウル
2013 ロンドンデザインフェスティバル:アートファニチャー展/ロンドン
2014 弘益アートファニチャー グループ展/ HCM・ソウル
2014 傾向ハウジングフェア:アートファニチャー展/ COEX・ソウル
2014 国際工芸トレンドフェア(創作工房ブース)/ COEX・ソウル
2016 Maison Korea 'Korean Sprit' 作品紹介/10月号・ソウル
2016 New memories in holiday展/ギャラリーアートサイド・ソウル
2016 国際工芸トレンドフェア(創作工房ブース)/ COEX・ソウル

丸沼芸術の森は1985年、須崎勝茂氏(株式会社丸沼倉庫 代表取締役)により設立され、40名以上のアーティストを輩出してきました。30年以上の支援活動の結果、村上隆氏を始め、多くの作家が現在、国内外で活躍しています。丸沼芸術の森は制作の場に留まらず、アートと社会を結ぶ架け橋となっています。今後は、国際文化交流を通じ、よりグローバルな活躍を各作家が目指せるようにレジデンスや展覧会の企画などを積極的に行い、活動の幅をさらに広げていきます。

Marunuma Art Park was established by Mr. Katsushige Susaki in 1985, and we hosted over 40 artists since then. Many artists, including Takashi Murakami, are active both at home and abroad as a result of our continued support to artists for over 30 years. Marunuma Art Park is not only a space for the conception of art but also acts as a bridge connecting art to society. We aim to further expand by broadening the range of our activities and proactively executing residency programs and exhibition plans. We hope that our artists can become more involved in international exchanges and globally more active.

丸沼芸術の森
Marunuma Art Park

〒351-0001 埼玉県朝霞市上内間木493-1

TEL: 048-456-2533

FAX: 048-456-0003

<http://marunuma-artpark.co.jp>

<http://marunuma-artpark.esy.es>

柳鍾大 展 — デジタルクラフト

主催: 丸沼芸術の森・韓国工芸デザイン文化振興院

後援: 駐日韓国文化院・Azabujuban Gallery

柳鍾大 展 / Ryu Jongdae Solo Exhibition

DIGITAL CRAFT

デジタルクラフト



Marunuma Art Park
2017 artists-in-residence program No.3

2017年9月8日(金) — 10日(日)

丸沼芸術の森と韓国工芸デザイン文化振興院が共同で実施するアーティスト・イン・レジデンス・プログラム、三人目の作家として滞在制作を行う柳鍾大はメッセージ性を込めた、木工や3Dプリンタによる独自の家具を発表してきた。

美術大学で木工を学んだ後、家具デザイナーとしての勤務を経て大学院へ進学、そしてアーティストの道を歩んできた。柳の作家としての一作目である《Real Fantasy》は以下のように解釈できる。世界トップクラスの長時間労働や過酷な受験戦争など、韓国や日本の社会においては実利が優先される一方で、アーティストは奇異な存在として見なされ、芸術は現実^{リアリティ}に存在しているのにも関わらず、まったくの幻想であるかのようだ。また、《Inception chair》は、着席した人が非現実世界に引き込まれるようにも見える。つまり、この椅子に腰かけることにより、人々が常識にとらわれた状態から覚醒して欲しい、とのメッセージが読み取れる。

本展で柳が発表する《Digital Craft》は座敷で使用される小さなテーブルだ。その脚は、柳が近年使用を始めた3Dプリンタによる金属と樹脂で、そして天板は木材で構成される。これは日本や韓国で伝統的に使用されてきた、脚付きの膳としての機能を持つ。木工と3Dプリンタ、あるいは伝統とテクノロジーは融和できる、との思いは、展覧会タイトル「デジタルクラフト」にも込められている。

私たちは新しいテクノロジーを利用した作品に出会うと、表現そのものより、テクノロジーの側面に注目しがちだ。これは人生の目的と経過の関係をとり違えがちな我々の姿勢にも似通っている。学歴やキャリアはプロセスであり、人生の目的では無い。そして家具の形態は時代や地域、それぞれの生活様式に直結するものでもある。柳の作品を通じ、伝統とテクノロジーが交錯する現代において私達がどう生きるべきか、考えてみたい。

大竹輝明(丸沼芸術の森 学芸員)



《Digital Craft》2017

《Digital Craft》2017
作品制作のための3Dモデリングイメージ



현재로부터 눈뜨는 꿈 ー 류중대에 의한 목공과 테크놀로지의 조형

마루누마 예술의 숲 과 한국 공예 디자인 문화 진흥원이 공동으로 실시한 아티스트 인 레지덴스 프로그램의 세번째 작가로 체제 제작을 하고 있는 류중대는 그의 메세지를 담은 목공과 3D 프린터에 의한 독자적인 가구를 발표 해 왔다. 미술대학에서 목공을 수학후 가구 디자이너로서 근무를 하다가 대학원에 진학, 그 후 아티스트의 길을 걷고있다.

류중대의 작가로서 첫번째 작품 이라고도 할 수있는 <Real Fantasy> 에는 다음과 같이 해석 할 수 있을 것 이다. 세계에서 손꼽히는 장시간 노동과 가혹한 수험전쟁 등, 한국과 일본의 사회에 있어서는 실리가 우선되는 한편, 아티스트가 기이한 존재로 보여지고있어서 예술은 현실에 존재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마치 환상과도 같아 보인다.

그의 작품 <Inception Chair>는 작품에 착석한 사람이 비 현실 세계에 끌려 들어가는 듯하게 보일지도 모른다. 그의 의자에 걸터앉음 으로 인해 사람들이 상식에 구애받는 상태로부터 각성 했으면 하는 작가의 마음이 느껴지는 작품이다.

본 전시에서 발표하는<Digital Craft>는 좌식에서 사용 되는 작은 테이블이다. 작품의 다리 부분은 류중대가 최근 사용을 시작한 3D 프린터에 의한 금속과 수지로, 위판의 부분은 목재로 구성된다. 이 작품은 일본과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사용 되어 왔던 소반과 같은 기능을 가진다 . 목공과 3D 프린터, 또는 전통과 테크놀로지 의 융합의 가능성 이라고 하는 의식이 이번 전시의 타이틀 [Digital Craft] 에도 담겨있다.

우리들은 새로운 테크놀로지 를 이용한 그의 작품과 만나면서 표현 자체만이 아닌 테크놀로지 의 측면에 주목 해야만 할 것이다. 그것은 인생의 목적과 경과의 관계가 뒤엉켜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도 닮았을지도 모른다. 학력이나 경력은 프로세스 일뿐 인생의 목적은 아니다. 그리고 가구의 형태는 시대와 지역, 각자의 생활양식에 직결되는 것이다.

류중대의 작품을 통해서 전통과 테크놀로지 가 교차하는 현대에 있어서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생각 해 보았으면 한다.

오타케 테루아키 (마루누마 예술의 숲 학예사)